

# 脫통신 닷 올린 LGU+... 고객중심 ‘디지털 혁신기업’ 선언

황현식 사장 대표이사 취임  
고객 중심 ‘질적성장’ 초점  
OTT 자사 콘텐츠 경쟁력 강화  
2025년까지 비통신 매출 30%

LG유플러스가 고객중심 경영과 질적 성장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진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비통신사업 분야에서 전사 매출의 30%를 달성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6대 주요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6월 30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황현식 사장 대표이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황 사장은 이 자리에서 LG유플러스를 ‘고객의 일상에 즐거운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 사장은 “LG유플러스는 디지털 기



지난달 30일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대표이사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기업을 지향하지만 기술 자체보다는 고객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고객 일상 속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방식으로 L

G유플러스는 ‘질적성장’을 선택했다. 질적 성장이란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플러스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유플러스에서 머물며 사용 경험을 늘려 나가고, 이러한 고객들이 늘어 회사의 성장동력이 튼튼해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과정에서 획득한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콘텐츠·데이터·솔루션 등 연관사업으로 확장해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B2C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U+아이들나라 ▲U+아이돌라이브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U+프로야구/U+골프 등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늘리고,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4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한 ‘U+아이들나라’는 놀이 중심의 양방향 콘텐츠를 확대하고, 교육 등 다양한 업체와 제휴해 부모와 선생님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고려한 투자보다는 자사 서비스를 강화

하는데 집중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키즈·아이돌·스포테인먼트·예능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자와 적극적인 제휴와 지분 투자로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고 제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B2B 시장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단순 인프라에서 솔루션 형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사업적으로는 B2C 대비 성장기회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 SI 등 LG그룹이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도 사업자와 제휴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 클라우드, AI고객센터 등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 비통신 사업의 매출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편의·안전사양·디자인 UP... 새 엠블럼 적용

기아 ‘더 2022 쏘렌토’ 출시

디젤에도 ‘그래비티’ 디자인 적용  
연식변경 모델... 2958만원 부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절대 강자’ 쏘렌토가 연식 변경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기아는 1일 쏘렌토 연식 변경 모델 ‘더 2022 쏘렌토’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기아는 더 2022 쏘렌토에 신규 엠블럼을 적용하고, 주 고객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 적용해 매력적인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

기존 선택사양으로 운영해 온 ▲LED 실내등(맵램프, 룸램프, 러기지램프)을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하고 주력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과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에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재출발) 등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추가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구간/국



기아 ‘더 2022 쏘렌토’ 전측면.

선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기본 적용했다.

또 쏘렌토의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그래비티’를 디젤 엔진 모델까지 확대 운영해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쏘렌토 그래비티는 20인치 블랙 알루미늄 휠과 불륨감 있는 그래비티 전용 가죽시트를 비롯해 주요 외장 포인트를 블랙 색상으로 적용해 한층 더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더 2022 쏘렌토는 기존 대비 편의·안전사양을 더해 상품성을 강화했으며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다. 더 2022 쏘렌토의 가격은 ▲2.5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이 트랜디 2958만원, 프레스티지 3252만원, 노블레스 3552만원, 시그니처 3846만원 그래비티 3944만원이며 ▲2.2 디젤 모델의 판매 가격은 트랜디 3056만원, 프레스티지 3351만원, 노블레스 3650만원, 시그니처 3944만원, 그래비티 4043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네이버, 獨 튀빙겐대와 AI 연구 ‘맞손’

‘신뢰할 수 있는 AI’ 연구 개발  
글로벌 AI R&D 생태계 확장

네이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연구 역량을 갖춘 독일 튀빙겐 대학교(University of Tübingen)와 더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네이버 채선주 CCO, 정석근 글로벌 CIC 대표, 하정우 AI Lab 소장, 오성준 AI Lab TL과, 튀빙겐대학교 피터 그라트볼(Peter Grathwohl) 공동 총장, 마티아

스 베타게(Matthias Bethge) AI 센터장, 제이넵 아카타(Zeynep Akata) 교수가 참석했다.

54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튀빙겐 대학교는 AI 분야에서 독일을 넘어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손꼽힌다. 인공지능·기계학습·로봇공학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도 AI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네이버와 튀빙겐대학교는 AI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해석 가능성을 향상시켜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다량의 언어·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편향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 또 AI 기반 시스템이 결괏값을 도출하는 방식에 대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 가능성’을 향상시킨 AI 연구도 함께 수행된다. 이를 통해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사용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튀빙겐 대학교와 강력한 연구 협력을 위해 튀빙겐대학교 AI 센터 내에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인력의 상호 교환 방문, 학생 연구자 지원 등 교류를 이어갈 방침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 이통3사 ‘농어촌5G 공동이용’ 세계서 인정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서  
‘5G 산업 파트너십 상’ 공동 수상

이동통신 3사가 힘을 합쳐 추진 중인 농어촌 지역 5G 공동 구축 및 이용이 글로벌 통신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6월 30일(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 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된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SMA Global Mobile Awards, GLOMO Awards)’에서 ‘5G 코리아, 농어촌 5G 공동 이용’으로 ‘5G 산업 파트너십 상(5G Industry Partnership Award)’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GLOMO Awards는 매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개최하는 세계적인 이동통신 분야 어워드며, 지난 1년 간 개발·출시된 이동통신 관련 기술·서비스 중 탁월한 성과에 대해 선정해 시상한다.

과기부와 이통 3사, 한국전자통신연

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농어촌 지역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5G 투자와 기술 구현 및 운영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5G 공동 이용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고, 이통 3사 간 농어촌 지역 공동 이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력을 맺었다.

‘농어촌 5G 공동 이용’은 정부와 통신기업들이 협력해 특정 지역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협업 모델이다. 이번 수상도 한 국가의 모든 무선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참여해 전국 단위의 5G 무선접속 네트워크(RAN) 웨어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통 3사가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5G 공동 이용’은 3사 가입자뿐 아니라 알뜰폰(MVNO) 가입자 및 글로벌 로밍 가입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 SKB ‘초고속인터넷·IPTV’ 고객 만족 1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서  
인터넷 7년, IPTV 3년 연속 선정

SK브로드밴드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에서 초고속인터넷 부문 7년 연속, IPTV 부문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KS-SQI는 각 산업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 전문성과 이용편리성, 사회적가치 추구 등 다양한 서비스 항목을 분석해 수치화한 지표로, 국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객 만족도 지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번 성과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을 통

해 고객에게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의 트렌드 리더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들려주는 생생한 목소리에 집중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VOC(고객의 소리)를 최우선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객만족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2021년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주위성센터를 시작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SK그룹 7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RE100’에도 가입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